

보 도 설 명 자 료 (18.5.8)

수신 : 산업통상자원부 등록기자

제목 : “재활용 안되는 페트병을…산업부, 신기술이라며 장관賞”
(5.8, 조선일보)

1. 기사내용

- 용기·포장재의 재활용2(곤란)~3(불가능) 등급에 해당하는 포장재 등을 산업통상자원부가 신기술로 인정 포상하여 정부내 소통부족이라는 지적

2. 동 기사에 대한 산업부 입장

- 미래 패키징 포상제도는 '07년부터 포장 분야의 신기술 개발 장려 위해 생산기술연구원 주관으로 정부 포상 시행

- 동 포상제도는 ①신기술성 ②시장성 ③표현성 ④재활용가능성 등 평가항목별 점수를 단순 합산하여 고득점 순으로 포상업체 선정
- 재활용 가능성은 지속가능성의 세부항목으로 평가되며, 정부의 재활용 강화 정책에 대한 고려가 미흡

- 산업부는 향후 평가요소 중 ‘재활용 가능성’ 분야를 대폭 강화하는 방향으로 포상 제도 개선 추진 예정

- **재활용 가능성을 별도 평가 항목으로 신설**하여 5개 항목으로 평가
* (현행) 신기술성·표현성·시장성·지속가능성 등 각 25점 → (개선) 신기술성·표현성·시장성·재활용 가능성·친환경성(감량·감용량·에너지회수성 등) 각 20점
- ‘포장재 재질·구조개선 기준(환경부 고시)’ 상 **3등급은 포상대상에서 원천적으로 배제**

* 현행기술 및 시장여건상 불가피하게 사용되는 재질 및 구조에 대해 부여하는 2등급 배제시 포상 신청 대상의 급감으로 포상제도 운영 곤란

- 아울러 동 제도개선 사항을 관계부처 합동(환경부 주관)으로 수립 추진중인 ‘재활용 종합관리대책’에 포함시킬 예정

※ 문의 : 산업통상자원부 엔지니어링디자인과 최영수 과장 (044-203-4230)
이금용 사무관 (044-203-4237)